



Hello, my name is Sister Pauline Grentz and I live at Caritas Christi in Greensburg, Pennsylvania. In September 1959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as a postulant. Now I live at Caritas and daily I help the nurses and aides care for the Sisters on the second floor. And I love helping the sisters and enjoy the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at Caritas. I feel so at home because ever since my youth I loved nature, walking in the woods, planting flowers, gardening, and going to the park to enjoy God's beautiful Earth. However, winter is my favorite time of the year.



I lived with my Mother, Father, sister and brother and my grandfather in the winter. My early education in K-3 took place in the public school and then in the Catholic school where art became my joy. I studied art in every level of my education and entered the convent at the age of twenty-one. As a sister I attended Seton Hill College.



I taught in our Catholic schools and at DePaul School in Pittsburgh for children with impaired hearing for 23 years. I loved it at DePaul and met wonderful sisters who helped to broaden my scope on the world, helped me to be flexible and to go with the flow. I was fortunate to go on many educational trips with Sister Jeremy Mahla.

I left DePaul and traveled to Korea and taught there for four years. Upon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I moved to Greensburg and worked for twenty years at Caritas Christi as an aide. I loved caring for the infirmed Sisters.



Also, I have always loved animals. Where I lived as a child, we had pets of all kinds. Now I enjoy visiting our pet goat, Taco.



My dream is to be in heaven with my Lord and God and with all those who have helped me along the way.



안녕하세요. 저는 폴린 그렌츠 Pauline Grentz 수녀입니다. 지금 펜실베이니아주 그린스버그에 있는 모원 까리타스 크리스티에 살고 있어요. 저는 1959 년 9 월에 청원자로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현재 까리타스에 살면서 2 층에 계신 우리 수녀들을 돌보는 간호사들과 보조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녀님들을 돕는 일과 까리타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숲을 걷고,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일 년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저의 할아버지와 부모님, 형제자매와 함께 지냈거든요. 초등학교 3 학년까지 저는 공립학교에 다녔고 그 후에 가톨릭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 미술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전부 미술을 배웠지요. 21 살에 입회하여, 수도자로서 씨튼 힐 대학에 다녔습니다.

저는 여러 가톨릭 학교에서 가르쳤고, 피츠버그의 청각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드폴 학교 DePaul School 에서 23 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저는 드폴 학교 DePaul School 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무척 좋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훌륭한 수녀님들은 세상에 대한 저의 시각을 넓혀주고, 제가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제레미 마흐라 Jeremy Mahla 수녀님과 함께 수학여행을 많이 다닌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드폴 학교를 떠나서는 한국으로 가서 4 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린스버그로 왔고 20 년 동안 까리타스 크리스티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을 했지요. 연로한 수녀님들을 돌보는 일이 참 좋았습니다.

또, 동물도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에는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동네 근처에 사는 애완 염소인 타코를 보러 가는 일이 참 즐거워요.

제 꿈은 저의 주님과 하느님,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저를 도와준 모든 분과 천국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